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 정 록



“열심히 노력하고 신중하게 임하면 가능성이 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EX-PO) 유치가가능성에 대한 국제박람회기구(BIE)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의 말이다.

여수 EXPO 유치, 정부에 달렸다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를 통해 중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킨다는 국가비전을 수립했고, 엑스포 유치를 국가의 제1과제로 추진했다. 반면에 한국은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것이 고작이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다르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위원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개최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엑스포는 중앙정부의 훈령을 받은 외교관의 투표로 결정된다.

를 위한 특단의 지원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해야 한다. 특히 유치활동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한국이 엑스포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회원국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이 예 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이혼 재판 업무를 맡은 지 8개월 가량이 됐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가혹하기 때문이다. 둘째, 의처증 및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이를 의심하는 배우자를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방을 의심하는 경우 상대방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미혼 법관의 이혼에 대한 단상(斷想)

필자 사건 가운데 다른 남성과 부정관계를 저지른 아내를 용서했던 남편이 틈만 나면 아내의 부정행위를 들춰내면서 심각한 폭력을 행사, 이를 참지 못한 아내가 결국 이혼을 청구했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확신에 차 아내의 불륜을 주장하는 모습은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셋째, 술·도박 못지 않게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경우다.

타이어 제조일자 운전자 알기 쉽게 표기

타이어를 교환한 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펑크가 나면서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타이어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가 교착한 타이어가 지난 2000년에 생산된 것이라 제조사 책임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업체측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들이 타이어의 생산일자를 그때마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독자마당

‘전기세’가 아닌 ‘전기요금’이 올바른 표현

언젠가 라디오에서 ‘전기세’라는 단어를 들었다. ‘전기세’는 방송, 언론매체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 같다.

란에 따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즉,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이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며, 차량의 사용여부나 소유재산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 일방적으로 부과되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동차 보험료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 가져야

자동차 보험료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최근 배달된 청약서를 비교해보니 지난해에 비해 보험료가 더 많이 산출돼 있었다.

니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따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전에 보험약관과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보험사가 이익 행위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택배회사, 상품 수취인이 받을때까지 책임져야

얼마전 우연히 빌라 소화전 문을 열었다가 한 보험사에서 아내 앞으로 배달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에 붙은 배송 전표를 보니 배송일이 3주일도 넘었고, “음식물(당일 배송 바랍니다)”라는 주의 사항까지 적혀 있었다.

트 경비실에서도 택배물건 수취를 꺼리기 때문에 비싼 물건이 아니면 그냥 아파트 소화전에 택배물건을 넣어두고 있다는 것. 회사측은 “소화전에 넣어둔 뒤 수취인의 휴대전화에 음성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혹시 분실 되더라도 택배 회사측에서 100% 변상을 해줘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 설

뿌리 못내린 친환경 농업 이대론 안 된다

농산물 수입개방을 극복하고 농촌회생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이 기술적 한계와 제도적 결합 등으로 아직껏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민들의 실천의지가 부족한 데다 특정 작목 집중을 막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물론 농가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가 거듭할수록 자꾸기압비중이 커지는 현행 보조금제도도 농민들의 중도포기를 부추길 게 뻔해 친환경 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국제사회 주목받는 北 ‘추가 핵실험 없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특사에게 “추가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보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의 발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제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 “방북 성과가 헛되지 않았다”는 탕자쉬안 특사의 말을 감안하면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無 等 鼓

‘대장정’(大長征)은 중국 공산당 군대인 홍군이 국민당 군대의 추격을 피해 1934년 10월 10일부터 36년 10월까지 약 2년동안 장시(江西)성 루이진(瑞金)에서 산시(陝西)성 북부 연안(延安)까지 이동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14개 성과 70개 현을 건너 2만5천리에 이르는 엄청난 거리였다.

남자들은 대부분 교육받지 못한 농민 출신이었다. 그러나 여자들은 혁명에 대한 열정으로 대도시에서 갓 도착한 인텔리였다. 무도회는 이들을 연결해주는 공식적 연애 장소였다. 그런 여인중 한명인 장청(江靑)은 1938년 마오의 침실에 드는 데 성공했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